외국인환자 맞춤형 의사소통 시스템 만들다

말 통하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 환자 만족도 향상

후배도 많이 생기고, 제법 익숙해져가는 업무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내가 근무하던 내과병동에 외국인환자들이 입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했다. 짧지만 간단한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환자들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이었고, 대부분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입원 당시에는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같이 동행해줬기에 통역을 통해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주치의에게 알리고 검사처방을 받아 검사실 안내를 위해 찾아갔더니 같이 왔던 코디네이터는 가고 없었다.

급한 대로 우리는 구글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예를 들어 '금식하세요'라고 입력을 하고 보여줬는데, 환자가 자꾸 갸우뚱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번역된 러시아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니 '제발, 게시물'이라고 알려줬다. 다시 '금식'이라고 단어만 입력했더니 이번에는 '기아'라고 번역됐다. 제대로 번역된 경우에도 환자가 말로 대답을 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 서로 답답하기만 했다.

외국인환자들이 하나 둘 늘어갈 무렵, 병원에서는 외국어강좌를 개설했다. 처음 교육을 다녀온 다음날, 배운 러시아어로 환자에게 인사를 건넸더니 놀라며 환한 웃음으로 반겨줬다. 꾸준히 더 배우고 싶었지만 3교대 근무를 하며 강좌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병동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지시처방이 적힌 낱말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일방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이었다.

이후 나는 QI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의 국적은 더욱 다양해졌고, 더 많은 진료과에서 치료 중임을 알게 됐다. 외국인환자들은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많이 긴장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마취과 QI활동을 통해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러시아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설문지를 통해 환자들의 요구도를 직접 확인한 결과 회복 중일 때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회복 중일 때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들이 원하는 의사소통 도구(판넬, mp3 음성파일)를 개발했다. 그 결과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분만실에서는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분만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QI활동을 진행했다. 단계가 복잡해 통역사 의존도가 높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입원했던 한 산모가 본인이 기록용으로 촬영한 분만과정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병원이 홍보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얻었다.

바람은 하나뿐이다. 우리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우리나라의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김한나 간호사
순천향대 부천병원 QI팀

2018년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내 용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간호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보수교육으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필수과목 내용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
필수과목 이수시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 1. 1.(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준	1. 필수과목(2시간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필수과목(2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 이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필수과목 이수로만 인정 ※ 필수과목 프로그램은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확인

부산시간호사회 '간호사, 나를 만나다' 교육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이해–간호사, 나를 만나다' 교육을 8월 10일 메리놀병원 강당에서 실시했다. 총 38개 기관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13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스트레스의 본질과 의사소통의 실제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 극복방법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해 올바른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질 높은 간호수행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스트레스 바로 알기, 성격유형 찾기, 긍정적 사고 키우기,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황순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신 간호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광주시간호사회 간호부서장 간담회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는 '2018 간호부서장 간담회'를 8월 16일 개최했다. 광주지역 병원의 간호부서장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숙자 회장이 간호현안과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간호부서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간호부서장들은 간호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인문학 특강을 '역사인물로 보는 마음 다스리는 방법' 주제로 서상일 금곡서당 훈장이 진행했다.

이숙자 회장은 "간호부서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국군간호사관학교 '통일군간호포럼' 개최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권명옥 장군)는 제2회 통일군간호포럼을 '통일을 대비한 안보와 군 간호의 융합' 주제로 8월 10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해 군 간호의 역할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군·학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가 '통일을 대비한 군과 군 의료의 역할'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돕는 의료인의 소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의 통일 준비' '북한의 간호교육 체계 분석 및 통일 단계별 통합방안'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의 통일 환경 분석'과 '통일 초기 간호장교 역할과 인력 수요 추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통일을 위한 군과 군 의료 발전방향' 주제로 패널토의가 열렸다.

권명옥 학교장은 "이번 포럼은 통일 한국에서 군 보건의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국간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군 간호교육기관으로서 통일 한국을 위해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삼성창원병원, 실험동물 이용 정맥술기 실습교육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신미란)는 신입간호사들의 정맥술기 향상을 위해 외부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신입간호사 16명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실험동물센터를 방문해 실험용 미니돼지를 대상으로 실습을 했다.

수면 마취한 돼지에게 정맥천자 실습을 하고, 초음파를 이용해 깊은 혈관을 찾아보며 정맥과 동맥을 구별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해부를 통해 부위별 혈관을 촉지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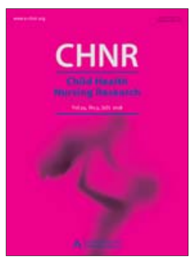
신입간호사들은 "귀 부분의 혈관이 노인 및 소아 혈관과 느낌이 비슷했고, 직접 정맥천자를 해보고 초음파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정맥주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신미란 간호부장은 신입간호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한국아동간호학회지 첫 영문판 발간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안영미)는 한국아동간호학회지(CHNR,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권 3호(2018년 7월호)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 영문판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SCOPUS 등재지인 한국아동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영문판을 발간키로 했다. 학회지는 연 4회 정기 발간하고 있다. 이 중 1회는 영문으로, 3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영문으로 발간한다.

안영미 회장은 "학회는 앞으로도 한국아동간호학회지를 통해 아동간호학 지식체를 선도하고 연구역량을 증진시켜 미래사회를 위한 간호학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제39회 간호문학상 작품 공모

간호사신문에서 간호문화 발전과 간호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공모해온 '간호문학상'이 39회를 맞이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4개 부문(자유주제)에 걸쳐 작품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부문	작 품 분 량	상 금
단편소설	A4 7장 내외 (한글 12포인트 작성)	당선작 70만원 / 가작 50만원
수 기	A4 4장 내외 (한글 12포인트 작성)	당선작 70만원 / 가작 50만원
수 필	A4 2장 내외 (한글 12포인트 작성)	당선작 50만원 / 가작 30만원
시	3편 이상	당선작 50만원 / 가작 30만원

- **원고마감 :** 2018년 10월 31일(수)
- **수상작 발표 :** 2018년 12월 중 간호사신문 지면
- **제출서류 :** 작품, 참가신청서, 학생증 사본(간호대학생에 한함)
  * 참가신청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부문별 중복접수 불가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 부문과 동일한 부문에 재응모 불가
- **보낼 곳 :** (04615)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2260–2571로 문의 바람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